

# 융복합 시대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연구

유병철, 이종영  
한국체육대학교

## A Study on the Sentence Length of Sports News in the Era of the Convergency

Byong Cher Yoo, Jong Young Le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 특성을 다른 취재 영역별, 일간종합지 매체별 그리고 스포츠종목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스포츠전문매체인 MK스포츠가 배포한 기사를 수집하여 문장의 길이를 분석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써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3가지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신문기사의 문장길이는 취재영역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치기사의 문장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사설 순이었고, 스포츠 기사가 가장 짧다. 둘째,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는 언론매체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전문매체인 MK스포츠가 다른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향신문보다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가 짧다. 셋째,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는 스포츠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골프가 가장 길며, 농구, 축구 순으로 길며 야구가 가장 짧다.

주제어 : 스포츠기사, 문장길이, 취재영역, 언론매체, 스포츠종목,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news articles compared with other sections, other newspaper and sports ev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4 daily newspapers(Chosun Ilbo, Dong-A Ilbo, Kyunghyang Shinmun and MKspor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ources. The length of sentence of collected articles was analyzed by One way ANOVA and Scheffe as post-hoc.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summariz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 the length of sentence of new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 by sections. To put it concretely, the sentences in politics section were the longest, and then economy, editorials comes. The sports section has the shortest sentences. Second, the length of sport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 by newspapers. In particular, MK sports which is a sports-oriented newspaper has the shortest in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articles than other newspapers such as Chosun, Dong-A and Kyunghyang. Third,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sports events. More specifically golf is the longest, and then basketball, soccer and baseball follows.

**Key Words** : Sports news, Sentence Length, Section, Newspaper, Sports event, Convergency

Received 2 May 2017, Revised 31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Yoo, Byong Che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Email: einer6623@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연구의 필요성

문자(text) 커뮤니케이션은 4차산업 시대를 맞은 현재도 여전히 왕성하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층 팽창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손글씨는 줄었지만,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상의 각종 댓글 등 문자 커뮤니케이션은 과거의 손글씨를 대체하고도 훨씬 남을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2012년 한국의 휴대폰사용자의 경우, 하루 평균 SNS이용량은 73.2분, 문자는 58.8분, 채팅/메신저는 39.3분이다. 문자 하나만 해도 통화사용량(59.3분)에 버금가고, 3가지를 합치면 통화량의 2.88배에 달한다(김윤화·신선 2013).

이러한 ‘문자팽창’ 현상은 미디어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종이신문의 기사량과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온라인 기사는 뛰어난 접근성을 앞세워 종이신문의 감소분을 대체하고 남는다. 수용자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온라인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기존 종이신문의 온라인 뉴스공급은 물론, 온라인으로만 뉴스를 공급하는 온라인미디어가 늘어나면서 문자뉴스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방송뉴스 등도 인터넷상에서 활자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SNS에서도 텍스트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이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중요한 현재의 융복합시대에 짧은 문장의 의사전달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견해는 언론계뿐 아니라 각종 보고서, 기획서 등 다른 사회분야에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글쓰기에서도 짧은 문장이 강조된 바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가급적 한 문장이 2~3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라.’(대통령비서실 2005)는 지침이 나왔다. 또 ‘짧은 문장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장은 글자수로 40 단어 미만의 길이라고 한다. 한 문장이 2줄 이내, 최대 3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행정안전부 2007)고 규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대입논술고사의 고득점 방법으로 ‘단문으로 써야 논술문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됐다(송남권 2013).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문의미이해력은 구문 복잡성의 하위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고 분석됐다(2007 이미경). 문장이 복잡하고 길수

록 독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짧다’의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이러한 짧은 문장이 독자들이 쉽게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척도인 독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영어권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한 문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대가 지날수록 문장의 길이가 짧아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초로 문장 길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접근한 Sherman(1893)은 그의 저서 문학분석론(*Analytics of Literature*)에서 영어문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Flesch(1946)는 문장길이는 독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 문장이 21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독자들은 문장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측면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Hoop(2005) 역시 2000년대 이후 한 문장이 17개 이하의 단어로 쓰일 때 독자의 독이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연구들(김한식, 2007; 신향식, 2007; 박갑수, 1977; 장재성, 1983)이 신문기사의 문장길이와 독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연구자가 어떠한 문장길이 측정방식을 취했는지, 매체 및 취재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또한 통계조사의 표본이 작다는 한계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기사문장론에 있어 문법적 오류, 어색한 표현, 지나친 외래어사용 등 질적 측면의 선행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문장의 길이에 대한 통계적, 과학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원칙을 설정하여 스포츠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뉴스보도들을 비교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스포츠 기사를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들과 비교한 이유는 스포츠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 및 물질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보다 가치중립적 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길이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신문기사의 취재 영역별 문장길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둘째, 언론 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는 차이가 있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단 3개 종합중앙일간지로 선정했다. 먼저 연구문제 1번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열독률이 높은 세 신문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우선 택했고, 두 매체와는 정치적 입장이 상이한 경향신문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번과 3번 즉, 매체별 스포츠기사와 종목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3개 종합중앙일간지에 스포츠전문 온라인매체인 MK스포츠를 추가로 포함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한국의 3대신문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일보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다. 중앙일보는 스포츠기사의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 방식에 따라 중앙일보 편집국 소속이 아닌, 일간스포츠나 J골프 기자들의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야는 스포츠, 정치, 경제, 사설 4개로 지정했고, 기간은 2014년 4월 한 달로 정했다. 4월은 동하게 주요프로스포츠가 동시에 열리는 시기적 특성이 있다. 매체별 각 분야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해 5명의 기사를 선정했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기자의 기사 5개(평균)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단, 기사작성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사설은 매체별로 하루 1개(대체로 1/3에 해당함)를 임의로 뽑았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newspapers

Newspaper	Section	# of Article	# of Sentence
Chosun	Sports	20	282
	Editorial	27	583
	Economy	26	360
	Politics	24	212
Dong-A	Sports	25	547
	Editorial	26	503
	Economy	25	403
	Politics	25	291
Kyunghyang	Sports	25	464
	Editorial	26	589
	Economy	25	339
	Politics	25	285
MK Sports	Sports	25	485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총 96개 기사(스포츠-20개, 사설-27개, 정치-24개, 경제-25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101개(스포츠, 정치, 경제-각 25개, 사설-26개), 그리고 MK스포츠는 25개의 스포츠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 2.2 조사방법

각 문장의 길이(글자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측정 원칙을 설정했다.

- 1)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 띄어쓰기는 구어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독이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마침표, 쉼표, 괄호, 가운데점, 인용부호 등 문장부호는 제외한다 - 마침표와 쉼표 등 구두점이 신문 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 4월 3일자 조선일보였다(오소백, 1971). 띄어쓰기와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발음되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
- 3) 숫자는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숫자도 구어에서 하나씩 발음된다.
- 4) 괄호안의 내용은 제외한다 - 괄호 안에 기록된 글자의 분량 및 성격이 기사마다 상이하고, 음독할 때 생략된다.
- 5) % 등 단위는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km처럼 2개 이상 문자일 때도 하나로 산정한다.
- 6) 소수점은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7.8의 예처럼 소수점은 구어에서 발음된다.
- 7) 공동기사(작성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어느 기자가 쓴 것인지 불분명한 까닭에 포함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측정원칙에 따라 4개 매체의 영역별 기사의 문장길이는 ‘훈글 프로그램’에서 코딩, 측정된 후 다시 ‘MS워드 프로그램’으로 복사해 재 측정했다. 각각의 측정된 값은 MS엑셀프로그램으로 옮겨 기사별 평균값, 기자별(5개 기사) 평균값, 분야별 평균값, 매체별 평균값을 산출했다.

###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

석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했다. 이후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했다. 이때 분석된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 3. 결과

#### 3.1 신문기사의 취재 영역별 문장길이의 차이

<Table 2>는 신문기사의 취재 영역별 문장길이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2>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etween sections

	N	M	S.D	F	Sig.	scheffe
1) sport	1778	38.61	19.589	91.575 ***	.001	4>3>2>1
2) editorial	1675	40.86	17.252			
3) economy	1102	46.47	21.330			
4) politics	816	51.05	22.892			
Total	5371	42.82	20.315			

\*\*\*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집된 3개 매체(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문장을 취재 분야별로 분류해 비교한 결과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보도이념적 특성과 관계없이 정치 기사가 평균 51.0자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경제(46.4자), 사설(40.8자), 스포츠(38.6자)의 순이었다.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가 가장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01$ ) 차이였다.

다시 말하면, 3개 매체 모두 정치기사가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경제, 사설과 스포츠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3.2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 차이

<Table 3>은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일보 44.7자, 경향신문 43.08자, 동아일보 42.80자, MK스포츠 36.18자로 측정돼 같은 스포츠 기사인 경우도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MK스포츠가 종합일간지보다 두드러지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  $p < .001$ ).

<Table 3>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y newspapers

	N	M	S.D.	F	Sig.	scheffe
1) Kyunghyang	1677	43.08	20.490	21.867 ***	.000	3>1,2>4
2) Dong-A	1744	42.80	19.526			
3) Chosun	1465	44.72	20.293			
4) MK Sports	485	36.18	21.237			
Total	5371	42.82	20.315			

\*\*\* $p < .001$

#### 3.3 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 차이

<Table 4>는 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y sports events

	N	M	S.D.	F	Sig.	scheffe
1) Golf	271	46.08	19.358	19.76 ***	.001	1>5>4 >2>3
2) Volleyball	39	35.44	18.907			
3) Baseball	679	33.54	15.989			
4) Football	414	40.37	23.282			
5) Basketball	161	40.58	16.577			
Total	1778	38.61	19.589			

\*\*\*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프가 46.08자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농구, 축구의 경우에 각각 40자 정도로 나타났다. 배구는 35.44자, 야구는 33.54자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 4. 논의

이 연구는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신문 취재 영역별(스포츠, 사설, 경제, 정치면), 매체별(경향, 동아, 조선, MK스포츠) 그리고 세부 종목별(골프, 배구, 야구, 축구, 농구)로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3가지 비교분석은 각각 그 차이에 있어 일관된 속성을 띠었다. 즉, 취재 영역별, 매체별 그리고 세부 종목별에 따라서 기사문장의 길이가 달랐고, 그 차이는 일정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취재 영역별 신문기사의 평균 문장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설, 스포츠 4개 분야 중 정치기사의 문장길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경제, 사설, 스포츠 순으로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언론현장에서 스포츠기사나 사설의 경우 통상 다른 영역의 기사에 비해서 독자들에게 잘 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독이성이 높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신문기사의 문장길이가 갈수록 짧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전체 신문기사의 평균 길이는 아무리 긴 정치영역 일지라도 51.05자 그리고 가장 짧은 스포츠영역은 38.61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1971년의 77.5자(오소백), 1977년의 62.3자(박갑수), 1983년의 64자(장재성), 2006년의 63.10자(김한식)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짧아진 것이다. 보다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2010년 전후에 모바일시대로 접어들면서 신문기사 문장의 단문화(短文化) 현상이 빨라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재 분야별 문장길어도 시대에 따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비교자료가 없는 스포츠기사를 제외하면, 사설이 시대를 관통해 가장 짧은 문장으로 측정됐고, 경제와 정치는 그 순위가 바뀌었다. 즉, 1971년에는 경제(87자)가 정치(80자)보다 길었지만 2006년에는 상황이 역전됐다(경제-58.11자, 정치-70.02자). 또 이번 연구(2014년)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경제 중시 풍토가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기사에 대한 문장길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스포츠기사의 길이가 다른 영역보다 짧다는 것은 모바일시대에서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기사만큼 큰 역할을 하는 취재분야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둘째,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대한 분석에서 스포츠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MK스포츠의 경우 다른 종합중앙일간지보다 문장길이가 더 짧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은 스포츠기사라고 해도 스포츠 전문성이 높은 스포츠전문매체가 종합중앙일간지에 비해 문장길이가 더 짧았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중앙일

간지의 경우, 스포츠기사는 정치, 사회, 문화 등 타 부서(취재 영역)로 보직변경이 가능하지만 스포츠 전문매체는 담당종목이 바뀔 뿐 계속 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담당할수록 해당 기사는 짧은 문장에 익숙해지며, 이러한 현상이 총화돼 전문스포츠매체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을 보다 짧게 작성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종목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분석한 결과 5대 프로종목은 순위는 골프 > 농구 > 축구 > 배구 > 야구였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결과는 배구 종목을 제외하고 프로종목의 대중성 및 활성화의 역순으로 나타났다(농구, 배구의 경우 야구기자들이 겨울철에 겸업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주로 같은 여름철에 열리는 골프, 축구, 야구를 대상으로 하면 보다 정확하다). 다시 말하면, 해당종목이 대중화, 활성화 될수록 스포츠 기사 역시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종목의 대중화는 많은 보도량을 전제로 독이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신문기사의 다른 영역별(정치, 경제, 사설)로 비교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 매체별(조선, 동아, 경향, MK스포츠) 그리고 종목별(골프, 배구, 야구, 축구, 농구)에 따라 그 차이와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된 기사의 문장길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와 사후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문기사의 취재영역별 문장길이는 정치 > 경제 > 사설 >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전문매체인 MK 스포츠가 다른 종합일간지보다 문장길이가 짧았다.

셋째, 스포츠종목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는 골프 > 농구 > 축구 > 배구 > 야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문장의 길이와 독이성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 문장길이가 어떻게 독자의 독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문장길이에 따른 수용자 효과(독자들이 이해를 한 정도)를 계량화된 방식으로 병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독이성과 관련한 특정 기사에 대한 수용자 연구는 기사의 클릭횟수(노출 정도), 호감도 통계, 댓글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해당 매체가 가진 고유의 영향력, 해당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사전 선호도, 포털 사이트의 기사노출 형태(위치), 댓글의 양과 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제목의 독자유인 정도 등 변인이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문장길이에 대한 수용자 효용성 연구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문장길이의 객관적 측정에 기반을 둔 통계적 접근과 그 해석만을 시도한 것이다. 향후 수용자 연구가 이뤄진다면 ‘짧은 문장은 독성이 높다’는 통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나아가 문장길이와 독이성의 관계를 구체적인 테이블로 제시할 정도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의 논리적 글쓰기에 있어 실용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취재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지 문장의 길이만 비교한 것이지 왜 스포츠기사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짧게 쓰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 다양한 취재 영역의 기자들을 인터뷰와 참여관찰 함으로써 왜 스포츠기사가 타 취재영역에 비해 짧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종목별에 따라 왜 문장길이가 차이가 나는지 기자들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영역별 그리고 종목별에 따라 왜 차이가 나는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 U. Chung,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subculture formation based on changing aspects of text-based communication in mobile chatting communication." *Journal of Basic Design and Art*, Vol. 14, No. 5, pp. 519-529, 2013
- [2] Y-H. Kim, S. Shin, "Analysis on the use of SNS(Social Network Service)." *KISDI STAT Report*, 13-12-01, 2013.
- [3] Jiyeun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 [4] B-H. Chang, S-H. Kwon, K-W. Park, "Niche Analysis of Competition among Online News Media : Focusing on Internet News, Portal News, Mobile Portal News, and Social Media News."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Vol. 17, No. 3, pp. 149-171, 2016.
- [5] Seung-Soo Shin, "A Study on Multi-Media Contents Security Using Android Ph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1, pp. 19-25, 2012.
- [6] D-G. Lee, " Diversity of Online News Media : Source and Frame Analys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 4, pp. 218-242, 2004.
- [7]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The reporting manual."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2006.
- [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reporting manual."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2007.
- [9] N-K. Song, et al., "When writing a short sentence, you can deliver the core of essay." *The Hankyoreh*, August 13, 2013 available at <http://www.hani.co.kr/rts/society/schooling/599500.html>
- [10] Lee-MI Kyung, Noh-Byungho, Kang-Anyoung, "The Study of Convergence on Lexical Complexity, Syntax Complexity, and Correlation among Language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219-229, 2017.
- [11] L. A. Sherman, " Analytics of literature: A manual

for the objective study of English prose and poetry." Boston: Ginn & Co., 1893.

- [12] R. F. Flesch, "The art of plain talk." New York: harper & Row., 1946.
- [13] K. W. Houp, et al., "Reporting technical inform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14] H-S. Kim,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Newspaper Articles : from the Perspective of Sentence Length."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nstitute, Vol. 10, No, 2, pp. 69-83, 2007.
- [15] H-S. Shin, "study on newspaper sentence construction and paragraph composition : focusing on paragraph construction of columns and editorials of 4 major daily newspaper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sity, 2007.
- [16] G-S. Park, "Problem in writing and the length of sentence."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7, No. 5, pp. 3-14, 1984.
- [17] J-S. Jang, "Character representation dictionary." Seoul: Sentence Studies, 1983.
- [18] S-B. Oh, "Media sentence strengthening." Seoul: Sahmyook Publication, 1972.
- [19] Y-Y Yoon, K-H K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57-274, 2015.

유 병 철(Yoo, Byong Chur)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학사)
- 2014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언론정보학과(체육학석사)
- 2015년 3월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스포츠, 미디어, 글쓰기
- E-Mail : einer6623@naver.com

이 중 영(Lee, Jong Young)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사)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88년 10월 : University of Illinois 체육학 (철학박사)
- 1991년 3월~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 사회이론
- E-Mail : jylee@knsu.ac.kr